

大學의 自律과 他律의 調和

朴 俊 熙
(梨花女大 教育學科 教授)

우리 나라 大學에 있어서 自律과 他律이 계속적인 葛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한국 대학이 여지껏 제 나름대로의 獨自의인 特性을 갖추지 못한 데에서 연유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에 유럽과 美國에 있어서의 대학의 발전과정과 기능을 比較教育學의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한국 대학의 현실을 再照明해 보고자 한다.

I. 大學의 理念

大學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 그리고 그곳에서 志向하는 理念은 무엇인가?

이 質問에 대해서는 아스퍼스나 그 밖의 많은 사람이 나름대로의 생각을 이야기한 적이 있긴 하나 반드시 그 사이에 一致點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생각하는 사람의 學識이나 處地에 따라서 그 論據도 다르고 또 該當 地域社會나 國家에 따라서도 일정하지 않음을 세삼 이야기할 必要도 없는 줄 안다. 더구나 社會나 國家 自體가 志向하는 理念과의 關聯에서 보면 그 獨特性과 差異性이 심하게 露呈된다. 그리고 그것의 設立目的이나 年代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文化的인 背景과의 關係를 고려하면 한층 더 狀況의 複雜하고 多樣함을 感知하게 된다.

다만 近代化過程에 있어서의 大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 사이에는 다소 막연하고 추상적인 점은 있지만, 이제 이야기한 각 大學이 지녀 왔거나 지니고 있는 理念에 있어서의 特殊性, 獨特性, 그리고 獨自性을 모두 排除해 볼 때에, 거기에는 그런 대로의 共通性이 남게 되는 것도 否認할 수 없다. 程度와 水準의 差異가 있고 體制와 形式 그리고 組織內容이나 方法에도 差異가 있어서 이 같은 獨自性, 獨特性, 그리고 特殊性을 다시 除去해 버리더라도 여전히 共通性 또는 類似性은 認知하고 發見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要約하면 國家와 社會 나아가서는 人類를 한층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데에 貢獻할 知性人을 기르는 것이다. 여기서 知性人이란 이른바 넓은 뜻에 있어서의 性質의 것으로 人格과 指導力 등을 망라한, 그러면서 이른바 知性을 중심으로 統合된 行動하는 人間을 뜻한다. 물론 狀況에 따라서 그것이 哲學 중심이 될 수도 있고, 歷史學 중심이 될 수도 있으며, 工學 중심이 될 수도 있고, 農學 중

심이 될 수도 있으며, 醫學 중심이 될 수도 있다. 어쨌든 자기 趣向에 따라 나름대로의 指導的인 知性, 특히 그 基礎를 다지는 것이 다름아닌 大學이 지닌 理念이라고 해도 크게 잘못된 接近은 아닌 듯하다.

II. 大學의 機能

이런 大學은 그러던 어떠한 機能을 수행해야 하는 것일까? 대학의 發展過程을 歷史的 次元에서 살펴본다면, 이에 대하여 생각하고 할 이야기가 많을 줄 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大學을 理論的 또는 學術的인 觀點에서라기 보다는 그런 대로 오랫동안 大學에 몸담아 오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의 一端을 이야기하는 一體験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는 一瞥에 그친다. 따라서 近代化過程에서 나타난 유럽에 있어서의 大學의 機能과, 새로운 氛圍氣를 形成하면서 오늘의 위대한 바탕을 짚은 期間에 이룩한 美國에 있어서의 大學의 機能을 比較教育學的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韓國의 大學에 비추어 보는 것으로 그치기로 한다.

흔히 大學을 가리켜 象牙塔이라는 別名으로 象徵하는 일이 日本에 이어 韓國에도 거의 習慣化되어 왔다. 그래서 大學이라고 하면 深奧한 學術을 鍊磨하고, 高邁한 指導者의 人格을 갖춘 人間을 俗世와는 無關하게 기르는 곳으로 여기고, 그것을 最高學府라는 말로도 表現해 온 것이 事實이다. 이렇게 보면 韓國의 成均館 같은 것도 그러한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象牙塔이라는 觀念은 아마도 유럽의 大學을 象徵하는 데서 비롯된 것 같다. 유럽의 大學이나 韓國의 成均館이나 비슷한 出發點을 가지고 있다. 그 첫째는 워니 워니 해도 支配層 또는 貴族階層에 속하는 子弟들만을 教育 對象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이같은 思想의 底邊에는 스파르타식 教育思想이나 孟子의 ‘得天下英才而教育之不亦君子之樂乎也’ 같은, 영특한 人材만을 教育對象으로 생각하는 思考가 뒷받침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特殊層의 子弟만을 對象으로 한 것만은 事實인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은 現實이나 俗世와는 無關하게 든

정이나 다른 걱정 없이 오히려 한적한 곳에서 學問과 高尚한 놀이를 즐기며, 공부나 하고 敎養이나 쌓으면 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것이 끝을 맺으면 거의 自動的으로 계속해서 支配層이나 貴族으로서의 넉넉하고 호화로운 生活을 즐길 수 있도록 保障이 되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기에 初期에는 大學의 學習內容도 神學, 法學, 文學 등이 주종이고 이른바 產業生産에 直結되는 農·工이나 醫術까지도 大學의 教育內容이 되지 못하였으며, 그런 것은 다음 層에 속하는 사람들이 할 일로 여겨져 왔던 것으로 理解된다. 韓國의 大學으로 말하면 「선비」的인 支配 및 管理能力의 培養이 主任務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現實과는 無關한 곳에서 느긋하게 젊은 歲月을 보냈으니 그곳에서 해야 할 일, 즉 機能이 敎授와 研究의 두 가지로 集約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유럽 大學의 課程에 대한 觀念이 이렇게 해서 생기고 그것나름으로 概念이 形成되었던 것으로 理解된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美國의 初期 大學에 있어서는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학이 결코 그렇지가 않았음을 感知하게 된다. 美國에서는 英國의 清教徒나 뒤이어 獨逸의 天主教徒들 중 넉넉치 못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開拓民과 같은 상황에서 건너가 거의 荒蕪地를 다같이 開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貴族과 庶民의 區別이 있을 수가 없었다고 보인다. 다 같이 개발되던 그 水準을 높이고 速度를 加速化하자니 각 地域마다 초기에는 먹고 살기 위한 農業開發을 중심으로, 그 知識과 技術을 共同으로 開發할 必要가 생겼다. 여기서 생겨난 것이 다름아닌 農業學校이고 農科大學이다. 그러다가 그 水準이 높아지고 範圍가 넓어지며 地域社會의 開發意欲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 중 많은 學校가 이른바 오늘의 州立大學 또는 그 州가 設立한 大學으로 發展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 地域의 우수한 젊은이로 하여금 공부를 하게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地域社會, 나아가 國家發展에 貢獻할 수 있는 知性人으로 發展해 주기를 바란 것이다. 그러므로 大學은 俗世를 떠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地域社會와 現實 속에서 發足한 것이었기에, 科學·技術分野도 마찬가지로 重視되고 다른 學問

이상으로 두게 있는 同列에 놓이게 되었다. 물론 공부하는 學生은 貴族이나 支配層의 子弟가 아니라 文字 그대로 地域社會人의 子弟였다.

이렇게 해서 出發하고 發展하게 된 美國 大學은 유럽의 그것과는 基本的으로 다르다. 그러므로 大學의 機能도 敎授와 研究에만 그치지 않고, 유럽의 大學이 關心을 가지지 않았던 社會奉仕가 첨가되게 되었다. 오늘 흔히 大學의 機能으로 敎授, 研究, 그리고 奉仕의 세 가지를 손꼽는 까닭이 여기에 緣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美國의 大學은 象牙塔이 아니고 地域社會 바로 그 일부이다. 여기에서, 美國의 大學이 地域社會, 政府 등과 직접·간접으로 그 提攜를 돈독히 함으로써 짧은 期間에 美國이 強大國이 되도록 促進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研究費를 地域社會, 企業, 그리고 政府가 支援하여 研究하게 하고 또 敎授하게 하며, 人材를 기르면서 奉仕하게 하고, 地域社會, 企業, 政府는 그것을 活用함으로써 一致된 步調를 맞추어 나아갔었다. 이것은 韓國의 狀況에서의 大學의 機能에 대해 많은 示唆을 준다고 생각된다.

III. 韓國의 大學

이런 觀點에서 볼 때에 韓國의 大學은 어떤 位置를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 韓國의 大學은 크게 다음 세 가지 特性을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첫째는 大學이 必要하다는 생각뿐에서, 즉 어떤 大學을 어떻게 組織하고 어떻게 運營하며 그 理念과 機能은 어떻게 規定하고 定立할 것인지를 研究할 餘裕가 없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大學이 研究와 基礎 없이 美軍政下에서 出發하게 되니 외부 形態만 美國의 그것을 模倣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막연히 大學이 必要하고, 즉 요새말로 表現하던, 高級人力의 必要를 느낄 뿐 最少限의 研究, 檢討를 거칠 사이도 없이, 能力조차 不足한 가운데 시작하였다. 이렇게 보면 自生 아닌 自生이기도 하고, 自生을 바라는 他生의 產物의 하나가 바로 韓國의 大學의 出發이었다고 해도 過言은 아닌 듯 싶다. 여기서 보다 重要한 것은 韓國의 大學이 自身の 眞實한 要求와

文化的 바탕 위에서 세워졌다면, 그것이 韓國의 것, 진정한 生命을 지니는 산 大學, 실속 있는 大學이 되고, 特性을 가지고 뿌리 내리는 大學이 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우리의 大學이 40년에 가까운 歷史를 가지면서도 이렇다 할 定型도 가지지 못한 채 자리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게 되었던 것, 즉 敎育人類學的인 意味에 있어서의 特性이 없는 大學이 된 것도 바로 이러한 것에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先進社會의 것을 學習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後進社會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現象이다. 韓國도 그 例外가 될 수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둘째, 그나마 大學의 理念이나 機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유럽쪽의 大學을 높이 評價하려는 傾向이 짙은 데다가, 많은 사람이 日本의 大學을 經驗하는 가운데 받은 영향에 의해, 大學을 유럽式 日本式 觀念 및 概念으로 理解하려는 傾向이 짙었다는 사실이다. 즉 大學을 象牙塔의 概念, 現實이나 俗世와는 無關해야 할 것이라는 觀念으로 보려는 潛意識을 形成하였던 것이다. 우리의 大學은 그와 같은 바탕 위에서 시작되고, 세워지고, 運營되고, 管理되어 왔으며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헤를 거듭해 왔다. 이 점이야말로 다시 한번 다같이 깊이 따져 보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大學이 종종 社會와의 關聯 속에서 安定 아닌 소용돌이가 繼續되어 온 까닭도 여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지금 새로운 發展을 圖謀하겠다고 出發하고 있는 韓國大學敎育協議會의 發展過程이나 運營方式도 이런 意味에서 그다지 바람직한 出發方法이라고만은 생각되지 않는다는 것이 率直한 心情이다. 좀더 다른 길은 없었을까 하는 말이기도 하다.

끝으로 세째는, 大學 自體의 理念이나 機能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은 觀念이나 概念을 固守하면서도, 실제로 그 內容에 있어서는 美國 大學의 特性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이야기한 대로 유럽의 大學과 美國의 大學은 出發과 理念, 機能이 모두 같지 않다. 그런데 韓國의 知性은 理念에 대해서는 유럽의 그것을 간직하려 하면서 그 實에 있어서는 美國의

그것을 배우려는 것이다.

이것은 相互衝突되는 矛盾을 스스로 안고 나서는 格으로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독특한 韓國的 獨立性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行政官僚가 잘 알지 못하거나 研究도 하지 않은 채 부질없는 固執으로 劃一的 傾向과 管理欲求 및 權限을 行使하여, 大學을 獨自의이고 個性 있게 그리고 多樣性을 갖추도록 하지 못하고 모두가 똑같은 것이 되게 함으로써, 大學發展에 阻害要因이 되어 왔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여지껏 우리의 大學은 韓國 大學으로서의 理念과 機能과 組織과 運營 등에 대해서 한번도 제대로 研究하는 重鎮級의 組織을 가져 본 일도 없었다. 따라서 研究結果를 마무리하여 最適의 것이라고 判斷되는 公共의 報告書 한번 韓國의 指導者級에 의해서 마련된 일이 없이 그대로 40年을 지냈다. 그때 그때 부딪치는 일은 몇몇 사람의 意見을 參考하되, 그것도 사실은 非專門家 또는 行政要員의 뜻을 合理化하는 水準을 벗어나지 못한 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고작이었던 것이 또한 지난 날의 일이고, 이것해야 政策責任者의 個人的인 斷片的 意見이나 方針이 大學을 支配해 온 것도 숨길 수 없는 지난날의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Ⅳ. 自律과 他律의 葛藤

韓國 大學의 特性 아닌 特性이 있다면 純然히 韓國의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럽의인 大學도 아니고 또 美國의인 大學도 아니며 日本式 大學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韓國의인 것이 되려는 努力도 적고 철저하게 어느 것을 그대로 판에 박아 模倣하는 것도 아니면서, 엉겨쥔 그 때 그 때를 피로 넘어가는 듯한 느낌마저 가지게 된다.

한가지 두드러진 特性이 있었다면 지극히 枝葉的인 事項에까지 行政當局의 판에 박은 듯한 그리고도 哲學이나 理念에 밝지 못한 擔當公務員의 諒解나 承認을 받아야 하고, 따라서 全國의 大學이 그 體系에 있어서 個性도 多樣性도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政策이나 行政指

導上의 失手나 誤謬가 있으면 그것을 誘導한 行政當局者나 諮問委員들은 마땅히 責任을 져야 할 것임에도 스스로 責任을 지기는 커녕 모두가 다른 곳에 그 責任을 돌리곤 여전히 曰可曰否하는 바람에 말건다운 發展을 가져 보지를 못했다고 할 수가 있다. 미근한 例로 美國의 專門家라는 사람을 내세워 大學에 있어서의 이른바 系列別 募集方案을 마련하여 實驗的 研究를 한다고 많은 예를 써 왔다. 그리고 그것을 自律的으로 誘導한다 하여 評價의 節次도 밟고 또 大學에 따라서는 實驗大學이 되고자 많은 努力도 하기를 여러 해 繼續하였다. 그러다가 卒業定員制와 관련하여 自由롭게 하라고 하니, 대부분이 學科別 募集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서 진정한 意味에서의 再評價나 反省과 같은 어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시치미를 떼고는 각각도 다른 計劃을 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그 방면에 오랫동안 研究를 한 元老나 그 밖의 人士들에 의한 衆知를 상당기간을 두고 마련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結果는 朝令暮改라는 批判의 對象이 되어 오기도 했었다.

또 그렇게 되는 데에는 다른 要因의 作用도 있었다. 하나는 대부분 大學의 運營責任者들이 國·公·私立을 막론하고 所信을 가지고 일하기 보다는 要領이나 눈치로써 자리를 維持하는 것이 고작이었다는 印象을 가지게 했던 것도 아마 숨길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그 뿐만도 아니다. 言論은 言論대로 잘 알지도 못한 채 멋대로 接近함으로써, 本意는 아니었을지 모르나, 오히려 混亂을 加重하는 役割을 해 왔던 것도 빼놓을 수는 없으리라. 不正한 일이야 파헤쳐야 하고 根本的으로 빛나가는 것이야 批判하여 바로 잡는 役割을 하는 것이 言論일터인데, 그때 그때의 단순한 느낌으로 곤란하게 만들어 學生이나 學父 兄마저 갈팡질팡하게 한 痕跡도 결코 否認할 수 없는 要因의 하나로 作用했었다고 해서 크게 잘못된 느낌은 아니었으리라.

이렇게 보면 이 모든 것은 大學이 누리고 또 獨自的으로 간직해야 할 自律의 權威가 他律 속 에서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結果라고 느껴진다.

大學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서울市內 某

私立大 附屬國民學校에서 제대로 教育을 해 보겠다고 定員을 法定定員보다 적게 募集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法定定員과 맞지 않는다고 놀리라고 한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었다. 또 成績을 評價해서 父母에게 보내는 通信欄에 記入하는 때에 있어서 秀優美良可의 表示를 하지 않고 文章으로 여러 가지를 친절하게 적고 부탁의 말까지 넣어 父兄으로부터의 評도 좋았고 아이들도 秀優美良可 등의 表示가 아니기 때문에 不必要한 心理的인 負擔도 없었는데, 監督하는 當局의 獎學士가 와서 이것은 規程에도 없을 뿐 아니라 이렇게 英터리로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당장 更正하라 해서 부득이 秀優美良可로 고쳤었다고 한다. 그런데 요사이 들으니 이제서야 깨달았는지 文章으로 表示하란다고 한다. 그러나 그 文章도 固定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範圍 안에서만 自律의이며, 더 좋은 表現方法은 許諾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이 모든 것이 自律과 他律의 葛藤의 所産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0년을 두고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어 온 것 중의 하나가 大學政策이고 行政이고 運營이 아니었던가. 좀더 좋은 理論과 原理 그리고 韓國的인 것을 大學當局이 研究해서 實施하여 個性을 지니려 하고 多樣性을 가져 보려 해도 그것이 거의 들어지지 않았던 것이 그 동안의 實情이었다고 생각이 된다. 그러기에 모든 大學이 大學담기도 어렵고 特色도 없이 사실상 똑같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 되어, 겨우 흉내나 낼까 말까 하는 사람을 卒業을 시킬 수는 있었지만, 創造的인 使命이라는 本來의 責任을 다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아무리 잘 하지 못한다고 해도, 行政當局의 非專門人인 職員이 생각하고 構想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그 大學에서 살고 가르치는, 信賴 있는 教授나 運營責任者가 그만 못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해 보거나 했었는지 묻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더구나 한 자리에 10년이나 또는 그 以上 있어서 經驗으로라도 事實上 專門家가 되는 것이 아니라 隨時로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는 韓國의 行政府의 實情에서는 그러한 느

낌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基本的인 法의 테두리와 國家的인 政策方向에서 離脫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적어도 自律規制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教授와 學長 또는 總長이 天痴가 아닌 이상, 最善을 다하여 自身들이 속해 있는 大學을 研究해 가면서 잘할 것이 아닌가. 그러다가 法에 어긋나거나 不正한 일이 있으면 그것은 法에 의해서 處理할 일이지 왜 細細한 것까지 이야기하여 오히려 어렵게 만들어 왔었는지 理解가 되지 않는다. 그 보다는 大學의 國家的 次元에서의 本質, 理念, 機能을 깊이 研究케 하여 확실하게 그 方向을 정하는 등 政策事業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V. 市場機能과 自律

1980年代에 들어와 開放과 自律은 國家的 次元에서의 政府의 重要한 政策方向인 줄로 알고 있다. 開放과 自律은 기실 表裏의 關係라고도 생각된다. 그런 뜻에서 한마디로 自律이야말로 貴重한 行爲規範으로 간직하고 뜻 있게 그것을 實現해야 할 尺度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 다른 말로 흔히 自制라는 말이 뜻하는 概念과 가까운 意味로도 받아 들일 수 있는 것이리라.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生物은 처음부터 自由 또는 自律을 누리기를 바란다. 그런데 自由나 自律은 반드시 責任을 스스로 지는 것을 前提로 한다. 그렇지 않고 自由만을 누리기를 바라고 責任을 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放從과 통하는 것으로 自由나 自律될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留意해야 할 것은 自律은 自律하는 經驗과 生活을 통해서 비로소 自律할 줄 아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觀念的으로 대하면은 自律的인 行爲가 따르지 않는 法이다. 그런데 自律은 指導를 받는 자나 自律을 누리도록 指導하는 位置에 있는 자나 다 같이 自律을 바라지만, 자칫 念慮가 된다 하여 실제로는 自律하는 機會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自律하도록 機會를 주면 責任 있는 自律 아닌 放從에 흐르기도 쉽다. 그리하여 모처럼 얻은 自律을 다시 빼앗기는 自縛自縛의 結果를 낳는 수가 많다. 이것이 바로 韓國과 같은 社會

에서 나타나기 쉬운 狀況이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오랫동안 自律하는 經驗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다. 自律이나 民主 또는 自由라는 用語를 잘 쓰고 主張하는 사람 가운데에 오히려 더욱 그러한 行爲를 보여 주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되는 現象도 이 때문이다. 말과 行爲가 乖離되어 있거나 自身만은 例外로 삼던 利己主義의 人性向이 그 原因이고 背景이다. 받는 者나 주는 者가 이 점에서는 똑같은 相反된 位置에서의 思考者요 行爲者임은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重要的 것은 실사 그렇다 해도 自律하는 機會를 주는 路만이 自律하는 體制를 構築하는 唯一한 路이다. 부질없는 保護나 依持는 그것을 根本의 路로 막는 일이다.

요사이 市場機能이라는 말이 많이 쓰인다. 또 市場機能에 맡긴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원래 經濟學上의 用語인 줄 안다. 그러나 그 基本概念은 大學發展을 위해서도 심분 適用될 수 있는 概念이라고 믿어진다. 말을 바꾸면 진정으로 大學이 大學답게 發展하도록 하는 路 역시 市場機能에 맡기는 路에 있다. 이것은 지난 近 40年間에 가까운 期間을 두고 經驗하고 實驗을 통하여 얻은 生々한 結論이라고 믿는다. 市場機能에 맡

긴다는 것은 잘 되면 잘 된 대로 大學當局의 功이지만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大學當局이 獨自의 責任질 것이며 누구도 責任을 대신 저주거나 도와 줄 必要가 없는 冷嚴한 過程과 結末을 스스로 責任진다는 것을 前提로 한다. 極端的인 경우에는 自滅하는 것을 甘受할 줄 아는 것을 前提로 한다. 뿐만 아니라 돕는 位置에 있는 當局 역시 自律과 어긋나는 부질없는 干涉은 철저히 삼가하고, 설사 잘못 되어도 充分하고 必要한 條件이 없는 한 人情이나 事情으로 도와주지 않는 體制를 固執하는 것을 前提로 한다.

韓國은 모든 分野에서 儒敎的인 思考와 體制로 말미암아, 必要 이상으로 말만의 惡포를 쏘아대는 것과는 달리, 지나칠 程度로 人情이나 事情에 못이겨 도와주게 되어, 이른바 龍頭蛇尾式으로 發展 없는 惡循環만 되풀이 되고 누구도 責任을 지지 않으며 時間만 흐르면 잊어 버리고 마는 風土에 놓여 있다. 이것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發展을 阻害하는 基本要因이다. 그러므로 80年代가 왔으니 市場機能이라는 自然淘汰의 嚴酷한 原理에 따라 個性과 多樣性을 發輝하게 하는 路만이 來日을 밝게 비춰 줄 것이다. *